

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사입력시간 : 2022/03/24 [15:08:12]

진예솔 기자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지난 17일 사범대학 1호관에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과 병행한 이번 행사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며 외국인 유학생 선배가 멘토로서 멘티인 후배들과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프로그램 참여자 (C)대구대

1차 프로그램에서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키르기스스탄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에밀베코바 아이 살큰 씨가 '유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특강자는 성공적인 취업 노하우와 유학 제도를 설명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적응과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멘토링을 했다.

2차 프로그램은 오는 31일 정란희 한중국제문화교육연구원장이 '유학생 제도와 인권'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대구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특강에 참여했던 자르페 크리스토퍼 대학원생(산업디자인전공)은 "그동안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정확히 몰랐다"며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부터 듣는 특강과 멘토링을 통해 여러 정보를 얻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Daegu University Multicultural So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held a mentoring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 the 17th, this event, in parallel with the non-face-to-face videoconference method in Building 1 of the College of Education, was hosted by the Multicultural So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te and sponsor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was conducted in a way that senior foreign students had conversations with their mentees as mentors. .

In the first program, Emilbekova Aisalken, who works at th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yrgyzstan office, gave a special lecture on the topic of 'Careers and Employ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special lecturer explained successful employment know-how and the study abroad system, and provided mentoring for foreign students to adapt to the country and strengthen their learning capabilities, and to decide their career path after graduation.

The second program will be held on the 31st, with a special lecture on the topic of "International Student System and Human Rights," which will be held on the 31st of the month by Ran-Hee Jeong,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Korean-Chinese Culture and Education.

Jarpe Christopher, a graduate student (industrial design major), who participated in the special lecture, said, "I didn't know exactly what it would take to get a job in Korea.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